미국, 북한과 거래 중국 10개사 수사 착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강화
유엔 금지 석탄·무기 거래 혐의
형사소추 염두 계좌 추적 중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광주일보 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對北) 무역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15일 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북한과의 위법거래 증거가 확보되면 금융 제재를 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선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사 대상 기업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를 근거로 하는 무역회사다. 미국 법무부가 발부한 수사허가 문서에 따르면 이 무역회사는 북한의 군 장비 및 무기 개발 계획과 관련된 물품 구입에 관여하고 있다. 위법 거래액은 총 7억 달러(약 7934억 원)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수사허가를 받아 이 무역회사와 관련된 회사가 미국 등에 보유한 8개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를 조사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계좌의 입·출금 명세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출금을 막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안보 분야 연구기관인 C4ADS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무역회사에 대해 “과거 3년간 북한산 석탄을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입한 업자”라고 지적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울러 이 무역회사의 관련사 한 곳은 북한이 수출하는 로켓탄 수송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나 C4ADS는 문제의 무역회사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단둥 즈청금속’(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으로 추정된다. ‘단둥 즈청금속’을 신호탄으로 다른 중국 업체들도 미국 당국의 자금흐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석탄·철강, 합성섬유 등을 취급하는 중국 업체 10개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광물을 거래하는 업체들은 현재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라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 석탄을 중국에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 소위원장은 지난 13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미 금융망에서 퇴출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들 10개 업체를 명시했다. ‘단둥 즈청금속’을 비롯해 산둥 국제무역, 셔먼 시앙위(Xiang Yu), 항저우 페이 어모이(Pei Amoy) 무역, 산둥 윤 힐(Yun Hill) 광산, 단둥 하오듀(Hao Du) 무역, 훈춘 신 타임즈(xin Times), 르자오(Rizhao) 철강, 차이나 돈 의류(Dawn Garmet), 시딕 징민 퓨텐(Sdic Jingmin Putian) 등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위법거래를 한 중국 단둥흥샹실업발전에 대해 금융 제재를 단행하고,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을 돈세탁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런 행정부의 독자 제재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며, 의회 차원에서도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의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아베 내각 지지율 35.8%
출범 후 최악…“사학비리 탓”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이 일본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도통신이 15~16일 실시해 발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월 조사 때보다 9.1%포인트(p) 떨어진 35.8%로,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이 발족한 이후 가장 낮았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10%p 증가한 53.1%였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 4일 자민당의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 후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급격히 하락해 각각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편 이번 교도통신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77.8%는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법인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학 스캔들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는 정부의 설명이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납득할 수 있다”는 응답은 15.4% 뿐이었다. /연합뉴스

폭설이 즐거운 칠레 소녀 지난 주말 칠레 수도 산티아고 일대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정전이 발생하고 도로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AP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칠레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설은 산티아고에서는 46년 만에 최대 규모로, 일부 도심 지역에는 적설량이 40㎝에 육박했다. 폭설에 따른 정전으로 산티아고 시민 28만 명 이상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산티아고의 크리스토발 언덕에서 소녀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91 태종의 외척 장손무기

무측천 모함으로 유배 중 자결

장손무기(長孫無忌, 594-659)는 낙양 출신으로 자는 보기다. 북주와 수나라에 걸쳐 돌궐 정책을 담당한 장손성의 아들로 태종 장손황후의 오빠다. 정관성세에 기여했고 말년 무측천 집권시 무고로 유배 중 자결했다.

어린 시절은 박복했다. 부친 사후 이복형 장손안업이 집안에서 내쫓아 외삼촌 고사렴의 집에서 자랐다. 지혜로웠고 역사와 문학에 깊이가 있었다. 고사렴은 질녀 장손씨를 이세민에게 출가시켰다. 세민의 부친 이연이 수말 진양에서 거병했다. 장안을 점령하고 당을 건국했다. 그는 위북행군전첨이 되어 세민을 보좌했다. 황태자 건성파와 세민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두건덕, 왕세충을 무찔러 천하통일의 기반을 튼튼히 한 세민을 제거하기 위해 황태자 건성과 동생 원길이 음모를 꾸몄다. 유명한 현무문의 정변이다. 심복인 장손무기, 고사렴, 위지경덕 등이 밤낮으로 황태자파를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장손무기 등의 보좌에 힘입어 현무문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세민은 부친의 양위를 받아 2대 황제로 즉위했다.

627년 이부상서 겸 제국공에 봉해졌다. 이부상서로 재직 중에는 법률을 정하고 교수형을 완화해 극형의 폐해를 줄이는 등 제도정비에 앞장섰다. 태종에게 그는 가족의 일원이었다. 조정안에서 그의 무게가 남달랐음은 물론이다. 우복야 봉이가 죽자 태종은 그를 재상직에 발탁하고 싶었다. 그러나 외척의 전횡을 경계한 장손황후의 반대로 실현될 수 없었다. 633년 사공에 임명되었다. 그는 간곡히 사양하며 “신은 황공하옵게도 황제의 외척입니다. 천하가 폐하를 사사롭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고 답하였다. 태종은 “나는 관직을 위해 사람을 택하는데 재능이 함께 하는가를 생각한다. 오늘에 천거한 것은 개인적으로 가깝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허락지 않았다.

636년 장손황후가 죽었다. 임종시 거듭 친인척을 멀리할 것을 당부했다. 오빠의 권세가 커지면 오히려 집안에 화근이 될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643년 태종은 능연각에 24명의 공신 초상화를 걸었는데 첫 번째를 차지했다. 고구려를 치기 위한 요동 출병때도 태종을 보좌했다. 태종 말년 가장 큰 문제는 후계자 결정이었다. 장남 승건이 기행을 저지르자 황태자 폐위 문제가 대두했다. 방현령은 차남인 위왕 이태를 밀었다. 그는 이태의 성품이 거칠어 황실의 안위가 위태로울 것으로 판단해 순한 심성의 9남 진왕 이치를 밀었다. 진왕을 황제로 옹립해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난이 뒤따랐다. 사서에는 “장손무기가 이치의 태자 옹립을 완고하게 주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주장에는 큰 무게가 있었다. 결국 이치가 후계자가 되고 그와 저수량이 좌우에서 보좌했다.

고종이 즉위하자 태위가 되어 국정의 중심에 섰다. 651년 「당률소의」 30권을 편찬했다. 653년 재상 방현령의 아들 방유애가 반란에 연류되자 그의 심문을 담당했다. 방유애가 참형에 처해지고 가문은 몰락했다.

654년 고종은 장손무기, 이적, 저수량, 우지녕을 내전으로 불렀다. 왕황후를 폐하고 총애하는 후궁 무측천을 황후로 봉하려는 의도였다. 고종이 장손무기에게 “황후는 아들이 없고, 무측천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지금 그녀를 황후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저수량이 “폐하께서 황후를 바꾸고자 하신다면 천하의 명문가에서 잘 골라 뽑아야지, 하필 무씨입니까”라며 격렬히 반대했다. 이적, 허경종 등의 찬성에 힘입어 무측천이 황후가 되고 저수량은 담주도독으로 좌천되었다. 658년 무황후는 측근 허경종을 시켜 그가 반란을 계획했다고 모함토록 지시했다. 고종은 외삼촌을 처벌하는 것을 주저했다. 허경종은 “결단할 때 주저하면 오히려 당한다”며 황제의 결단을 촉구했다. 결국 조서를 내려 현 스촨성 펑수이인 검주로 유배보냈다. 그해 7월 역모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허경종은 장손무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했다. 그는 목을 매 죽고 가산은 몰수되고 가족은 노비로 전락했다. 일찍이 외척의 국정개입을 극력 경계한 여동생 장손황후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G.O.Auct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음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음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음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음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담후결정)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천3백포함)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음 지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담후결정)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중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융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65억 근린시설 스포츠타운 최적합
★ [토지] 광산구 송정역(KTX) 인근대로변 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관광호텔주변 카페거리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토지] 서구 풍암동 녹지지역 임야26,139㎡ 매매 평당7만
★ [토지] 북구 삼각동 1종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10억 조정가능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 은 희 062-714-2254